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전국무대 맹활약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순창의 위상을 드높였다. 순창군청 역도팀(감독 1명, 선수 3명)은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주인공은 황수민 선수다. 95kg급에 출전한 황수민 선수는 인상에서 160kg을 들어 올리며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용상에서도 190kg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 350kg으로 체급 종합 1위에 오르며,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75kg급에 출전한 장서진 선수 역시 값진 성과를 보냈다. 장서진 선수는 인상 132kg(4위)과 용상 160kg(3위)을 기록, 합계 292kg으로 체급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 2개(용상, 합계)를 추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지난 1일 동향면민의 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및 감액 최소화를 위한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진안군 농업정책과, 진안군 4-H 연합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에서 20여 명이 참석하여 주변 농지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행사장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됐으며,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용 부채 배포를 통해 더운 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남원소방서가 휴가철 장거리 차량 이동에 폭염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발생 초기 신속한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초기 차량용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검용' 표시가 되어 있는 진동 시험을 거친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 어르신 건강 위한 우유 나눔

락토프리 우유 2만개, 익산·김제 노인복지관에 1년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가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익산과 김제 노인복지관에 1년간 락토프리 우유 2만 개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총 1,600만 원 상당의 락토프리 우유 2만 개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익산과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800만 원 상당의 우유를 전달한다. 매월 각 복지관에 약 800개의 락토프리 우유를 정기적으로 배송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우유사랑 나눔' 행사에는 이상욱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장과 김병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4일 같은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유는 유당불내증 등으로 일반 우유 섭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락토프리 제품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 우유의 영양적 가치와 국산 우유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나눔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확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



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욱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우유 나눔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우유 나눔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1회 연속 1등급

골든타임 내 최고 수준 진료 역량 입증

전북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1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11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의 뇌졸중 진료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종합점수 상위 20%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가산금 지급 대상에도 선정됐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을 낮추고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평가다. 전북대병원은 1차 평가부터 이번 11차 평가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을 주상병(I60~I63)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전체 평균인 85.17점을 크게 웃도는 종합점수 100점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우수한 뇌졸중관찰 치료 역량을 인정받았다. 세부 평가에서도 인력 및 시설(Stroke Unit) 구성 여부 A등급을 비롯해 병원 도착 6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술 실시율 100%, 병원 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 혈전제거술 실시율 100%, 조기재활 평가를 100%, 기능평가 실시율 100% 등 핵심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진료 결과를 평가하는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허혈성)도 0%를 기록해 체계적인 치료와 철저한 환자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11회 연속 1등급과 종합점수 100점 달성은 의료진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권역 심뇌혈관질환을 책임지는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골든타임 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8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완주 창포마을, 국공립어린이집 생태체험 협약

완주군 창포마을(대표 노재석)이 관내 15개 국공립어린이집과 농촌 생태체험 활성화 및 영유아 정서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적인 현장 체험학습 축소 기조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부가 아닌 지역 사회 내부로 눈을 돌려 새로운 위기 극복의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창포마을 내 '느림' 카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창포마을 관계자들과 관내 15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해 완주군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과 정서발달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호원대 앵커사업단, 해양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앵커(RISE)사업단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와 군산 해안 일대에서 전북권 산업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역연계를 통한 해양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반반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스포츠무도학과 교수진과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스킨스쿠버 기초 및 심화교육 △해양안전 교육 △해양실습을 통한 수중정화 활동 △전문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스킨스쿠버 장비 운용과 안전관리 능력을 익히는 한편, 군산 해안 일대에서 실시한 수중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소방안전캠프 지원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위원장 김학경)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단위 소방안전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음료 지원은 전북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제4회 제북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7월 27일~30일) 기간에 추진되었으며, 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